

대림산업 청계천변 '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' 분양



대림산업이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'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'를 분양 중이다.

지하 3층, 지상 18~27층, 8개 동 규모로, 총 823세대 중 전용면적 51~109㎡ 403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.

면적별 분양 가구는 ▲ 51㎡ 2세대 ▲ 59㎡ 158세대 ▲ 74㎡ 122세대 ▲ 84㎡ 104세대 ▲ 109㎡ 17세대 등이다.

지하철 1·2호선 신설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2호선 상왕십리역과 내부순환로 마칭IC도 가깝다. 단지 인근에 청량리 롯데백화점과 이마트, 경동시장, 고대안암병원, 한양대병원 등 생활편의시설과 의료 시설이 있다.

또 청계천 건너에는 6천여 세대의 왕십리 뉴타운이 있어 뉴타운 내 각종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. 교육시설은 용두초, 대광중·고, 동대문 도서관 등이 있다.

세대 내부에는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두터운 차음재(60mm)와 층상벽면배관 공법을 적용했다.

이와 함께 주차공간을 100% 지하화하고 위치 인식 기술을 도입해 각 세대에서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.

대림산업 관계자는 "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는 직장·주거 근접성이 우수해 내 집 마련 수요층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"고 말했다. ❶